지상선 스포츠 즐기고 지하선 미술·음악 감상

높이 7.5m 하니움 조형물

화순에 신개념 문화·체육 통합 시설 '하니움 센터' 개관

화순에 명품 건물이 탄생했다. 지난 18일 화순공설운동장 부지에서 개관식을 갖고 모습을 드러낸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 센터(이하 하니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착공 때부터 큰 관심을 받아온 하니움은 한 건물에 실내체육관과 문예회관이 함께 있는 전국 최초의 수직복합건물이다.

또한 최신 공법으로 체육관과 대강당의 넓은 공간을 조성하고, 태양열·지열을 이용한 건물 냉·난방 시스템, 빗물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춘 에너지 절전형 최첨단 건물이다.

지상 1층 경기장·지상 2층 체육관
지하 2층엔 전시실·공연장·대강당

태양광 자체 발전·빗물 활용 시설
친환경 명품 건물 화순 랜드마크로

아울러 건물 주변엔 99m의 긴 회랑과 대형 붓 석조물 그리고 호수·산책길 등이 어우러져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화순의 랜드마크로 탄생했다.

이러한 최첨단 문화·스포츠 센터가 들어섬에 따라 군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와 문화체험 등 업그레이드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넓은 체육관에서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등을 개최해 지방체육 진흥과 스포츠 마케팅에도 활기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체육관 명칭인 '하니움(Hanium)'은 화합(Harmony)과 중심(Centrum)의 합성어로 화순의 조화와 화합의 중심이 되는 문화스포츠센터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뜻을 담고 하니움은 군민들의 건강생활과 문화 체험을 증진시키는 '스포츠와 문화의 충전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 공설운동장 부지내 5만1천548㎡의 면적에 세워진 하니움은 공사비 330억원(국비 118억·교부세 20억·도비 30억·군비 162억)을 들여 지상 2층·지상 3층 규모로 지난해 4월 착공해서 17개월만에 완공되었다.

하니움의 가장 큰 특징은 수직복합건물이다는 것이다.

지상 1층에 경기장, 지상 2층엔 경기진행상황실·보도방송실 등 체육관이 있으며 지하엔 세미나실과 교육강좌실(이상 지하 1층) 그리고 전시실·공연장·대강당(이상 지하 2층) 등이 있는 문예회관이 있다.

한마디로 한 곳에서 스포츠 경기를 관전하고, 미술 작품과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듯 체육관과 문예회관을 한 건물내에 배치시킴으로써 건축비 100억원·연간 유지비 8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모범사례로 선정해 2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니움의 두 번째 특징은 에너지 절감형 건물이다는 것.

먼저 태양광을 활용해 75KW의 건물 자체발전시설을 갖췄고 지열온도차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로써 연간 전기료도 3천만원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하 2층까지 햇빛이 들 수 있도록 건물중앙에 큰 공간(선큰)을 조성했다.

또한 빗물을 받아놓았다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빗물저장고도 설치했다.

하니움의 실내체육관은 가장 돋보이는 내부시설 중 하나이다.

가로 72m·세로 42m로 배구와 농구는 3경기, 배드민턴은 14경기를 동시에 치를 수 있는 대형 체육관이다. 관중석은 2천730석 이며 실내조명도 최고 3천룩스까지 가능해 어떠한 국제대회도 충분히 개최할 수 있게 되어있다.

체육관 바닥은 어떠한 경기를 펼쳐도 아래층까지 진동이나 소음은 전달되지 않도록 탄성 좋고 충격 완화·소음 차단까지 가능한 북미산 단풍나무로 만들어졌다.

체육관 공법도 기둥이 없는 대형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포스트텐션 공법을 활용했다. 포스트 텐션공법은 철근보에 PC강선 와이어를 넣어 양쪽에서 잡아당겨 고정시키는 공법이다.

화순군은 이렇듯 최신식 시설을 갖춘 체육관에서 오는 23일 열릴 삼성화재배 전국대학배구 추계대회를 비롯 연내에 5개의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하 2층에 있는 대강당은 725석 규모로 공연·연극·콘서트 등을 할 수 있다. 소공연장은 영화 상영이나 강연이 가능한 168석 규모이다. 그리고 전시실·세미나실 2곳, 교육강좌실 3곳도 마련돼 있다.

하니움은 또한 방염·불연재 시공으로 화재 등 재해 발생시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빠른 시간안에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니움 주변에도 눈에 띄는 조형물과 호수·회랑 등이 있다. 먼저 하니움 입구엔 화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높이 7.5m, 무게 75톤의 거대한 붓 석조물이 시선을 끈다. 이 조형물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한 화순 출신 조성태씨의 작품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길이 99m의 전통 회랑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비나 햇빛을 피하면서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하니움 로비 벽면은 백범 김구 선생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초록한 서각 작품으로 장식돼 있다.

전완준 화순군수는 "하니움 개관으로 군민들이 다양한 스포츠와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면서 "앞으로 하니움이 명소가 돼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운영계획을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스포츠 센터 체육관

725석 규모 공연장

춘곡 갤러리

한 건물 안에 체육관과 문예회관이 함께 들어선 전국 최초의 수직복합건물이며 화순의 랜드마크로 떠오른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전경을 상공에서 내려다 본 모습.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